

벧새다 맹인 단락(막 8:22-26)의 ‘보다’ 관련 동사에 관한 연구

박찬웅*

1. 서론

벧새다 맹인 단락은 복음서 가운데 마가에만 나타나며, 마가복음의 문학적 구성에서도 중요한 위치에 있다. 이 단락은 마가의 중요한 편집인 세 번의 수난예고 단락 직전에 있는데, 즉 예수 수난에 관한 주제가 드러나기 이전 이야기들의 결론부에 위치함으로써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전후 맥락을 보면, 직전 단락(막 8:14-21)에서 바리새인과 헤롯, 그리고 열두 제자에 대한 부정적 묘사 직후에 등장하는 벧새다 맹인은 이들과 무언가 상반된 인물로 여겨질 수 있다. 또한 이 단락 직후에는 소위 베드로의 ‘메시아 고백’ 장면이 언급된다. 이는 열두 제자의 메시아 이해가 드러나는 결정적 장면이며, 또한 매우 중요한 분기점에 해당된다. 그런데 ‘보는 것’이 곧 이해 또는 인식이라는 개념으로 연장될 수 있다면, 본문에는 벧새다 맹인의 이해력과 제자들의 이해력을 상호 대조하려는 마가의 편집 의도가 드러나 있는 배치로 볼 수 있다.

또한 본문 자체에 대한 미시적인 고찰을 통해서도 이 단락의 중요성이 드러난다. 첫째, 본문은 2단계 치유라는 매우 예외적인 상황을 다루고 있다. 예수의 첫 번째 치유 행위로 맹인이 완전히 치유된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안수를 통해서야 온전히 나음을 받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기 때문이다.¹⁾ 왜 이런 2단계 치유 행위가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할 것이다.

* Ruprecht-Karls-Universität Heidelberg에서 신약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음. 현재 목원대학교 신학과 겸임교수. ont66@hanmail.net.

1) R. H. Gundry, *Mark: A Commentary on His Apology for the Cross* (Grand Rapids: Eerdmans, 1993), 9는 군대 귀신 본문(막 5:1-20)을 2단계 치유로 보려고 시도한다. 그러나 귀신축출 이야기를 치유 행적의 범주로 간주하는 것은 무리며, 또한 해당 본문에서는 명확하게 2단계가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본문에는 ‘보다’와 관련된 다양한 어휘가 사용되는데, 이를 마가의 의도에 맞게 적절히 번역하는 것도 중요한 관건일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다루려고 한다. 첫째, 본문의 번역에 관한 부분이다. 본문에서 번역과 관련하여 논의의 여지가 있는 부분은 없을까? 가령 ‘보다’와 관련된 동사가 다양하게 사용되는데, 이러한 다양한 어휘를 구별하여 원어에 가깝게 번역하는 길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둘째, 편집비평의 차원에서 보면, 마가 기자의 메시지를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전후 맥락과 관련하여 마가 기자가 전달하려고 했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는 것 또한 본 연구의 중요한 목적이다. 셋째, 마가의 신학을 공동체의 정황과 관련하여 해석하는 사회학적 해석의 차원을 다루고자 한다. 특히 브레데(W. Wrede)의 ‘메시아 비밀’ 신학과 관련하여, 마가공동체의 정황 속에서 벧새다 맹인이 어떤 모델로 상징되고 있는지를 추정하고자 한다.

2. ‘보다’ 관련 합성동사에 대한 논의

본문에서는 ‘보다’와 관련된 동사가 여섯 번 언급되는데, 그 종류는 다섯 개로 나타난다(23-25절). 이 다섯 개의 동사의 원형은 각각 βλέπω, ἀναβλέπω, διαβλέπω, ἐμβλέπω, ὁράω다. 이 동사들은 23-25절에서 다음과 같이 사용된다.²⁾

23절: εἴ τι βλέπεις;

24절: καὶ ἀναβλέψας ἔλεγεν· βλέπω τοὺς ἀνθρώπους ὅτι ὡς δένδρα ὁρῶ περιπατοῦντας.

25절: καὶ διέβλεψεν καὶ ἀπεκατέστη καὶ ἐνέβλεπεν τηλαυγῶς ἅπαντα.

23-25절에서 사용된 ‘보다’ 관련 동사 가운데, 특히 βλέπω에서 파생한 합성동사 세 개(ἀναβλέπω, διαβλέπω, ἐμβλέπω)에 대한 번역이 중요하다.³⁾ 한글, 영어, 독어 성경의 각 번역서마다 다양한 표현으로 번역을 하고 있지만, 대

2) 마가복음의 ‘보다’ 동사를 포함한 다양한 시각적 용어들에 대한 분석과 설명에 관해서는, 조태연, “마가복음의 ‘봄’과 관련된 동사들: 새로운 번역을 위한 신학적 관찰과 제안”, 『성경원문연구』 32 (2013), 137-158을 보라.

3) 세 개의 합성동사를 연달아 사용한 것은 단순히 동어 반복을 피해 변화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주장에 관해서는, C. E. B. Cranfield, *The Gospel according to St. Mark*, Cambridge Greek Testament Commentari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59), 264-265; W. L. Lane, *The Gospel of Mark*, The New International Commentary on the New Testament (Grand Rapids: Eerdmans, 1974), 285-286, n. 5를 보라. 그러나 F. J. Moloney, *The Gospel of Mark: A Commentary* (Massachusetts: Hendrickson, 2002), 164에 따르면, 이는 마지막 묘사에서 절정을 드러내기 위한 구성이다.

체로 διαβλέπω와 ἐμβλέπω의 번역에서는 커다란 차이를 찾을 수 없다(시제를 번역함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는데, 이에 관해서는 뒤에서 다루기로 한다). 한글 번역만을 비교하면, διαβλέπω는 ‘주목하여 보다’(『개역개정』), ‘뚫어지듯이 바라보다’(『표준』), ‘눈이 밝아지다’(『공동개정』)로, ἐμβλέπω는 ‘밝히 보다’(『개역개정』), ‘똑똑히 보다’(『표준』, 『공동개정』)로 번역하고 있다. διαβλέπω와 ἐμβλέπω가 신약성서에서 그리 자주 사용되지 않는 합성동사이므로 그 뜻을 신중하게 번역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우선 이 두 동사에 관하여 간략하게 고찰한 후, ἀναβλέπω의 번역에 관해 논의해보겠다.

2.1. διαβλέπω에 관한 논의

이 단어는 신약성서에서 단 3회 사용되는데(마 7:5; 막 8:25; 눅 6:42), ‘깨뚫어, 통과하여’에 해당하는 전치사 διά가 합성된 동사다. 바우어-알란트에 따르면, 그 의미는 ‘깨뚫어 보다(scharf hinblicken)’, ‘집중하여 보다’, ‘완벽하게 보다(genau zusehen)’ 등으로 풀이될 수 있다.⁴⁾ 벧새다 맹인 본문 외에 유일하게 이 동사가 등장하는 부분은 산상설교 단락이다.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마 7:5 = 눅 6:42). 『개역개정』 번역은 마가복음 8:25에서는 ‘주목하여 보다’로 번역했지만, 마태복음 7:5 및 누가복음 6:42에서는 ‘밝히 보다’로 번역했다. 이러한 양자의 번역에 큰 차이는 없어 보인다. 왜냐하면 διαβλέπω는 무언가가려져 있던 것이 제거되어 완전한 통찰력을 얻게 된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밝히 보다’와 ‘주목하여 보다’는 모두 무리 없는 번역으로 보인다. 즉 두 번째 안수를 받은 맹인의 경우에는 흐릿하게 보던 상태에서 벗어나 온전한 시력을 회복하게 된 것을, 산상설교에서는 눈 속의 들보가 제거된 이후의 밝히 보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으로 διαβλέπω가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마가는 맹인의 시력에 관한 인식 능력이 완전한 경지에 이르렀음을 묘사하기 위해 이 동사를 신중하게 사용했다고 볼 수 있다.

2.2. ἐμβλέπω에 관한 논의

ἐμβλέπω는 신약성서에서 11회(또는 12회⁵⁾) 나타난다.⁶⁾ ἐμβλέπω는 ‘안에’,

4) “διαβλέπω”, W. Bauer and K. Aland, *Wörterbuch zum Neuen Testament*, 6. Aufl. (Berlin; New York: Walter de Gruyter, 1988). 또한 O. Böcher, “διαβλέπω”, Horst Balz and Gerhard Schneider, eds., *EDNT*, vol. 1 (Grand Rapids: Eerdmans, 1990), 297을 참조하라

5) 가령 행 1:11의 사본 가운데 βλέπω 대신 ἐμβλέπω로 된 것들이 있다(A, C, Koine D).

6) 마 6:26; 19:26; 막 8:25; 10:21, 27; 14:67; 눅 20:17; 22:61; 요 1:36, 42; 행 22:11.

‘내부어’를 의미하는 전치사 ἐν이 합성된 동사다. 이 ἐμβλέπω는 단순히 ‘보다’(βλέπω)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지만, 대부분 주어가 예수 자신으로 나타난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막 10:21, 27; 마 19:26; 눅 20:17; 22:61; 요 1:42). 물론 예수가 주어가 아닌 경우도 더러 있다. 가령 대제사장의 여종이 베드로의 정체를 알아차리는 대목에서 이 단어가 언급된다(막 14:67). 요한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이 예수의 거니심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말하며, 그 두 제자가 이 말을 듣고 예수의 제자가 된 것으로 보도된다(요 1:36). 그러므로 ἐμβλέπω는 예수 자신의 ‘봄’을 말하거나, 무언가 신중하고 중요한 ‘봄’을 의미한다고 파악할 수 있다.

“공중의 새를 보라(ἐμβλέψατε)”는 말씀에서 이 단어가 사용된다는 점도 중요한 참고 사항이 된다(마 6:26). 병행 본문에서 누가 기자는 이 단어 대신 신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의미하는 κατανοέω를 사용한다(눅 12:24). 그러므로 이는 단순히 ‘보다’의 의미가 아니라 매우 신중한 관찰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공중의 새를 보고 지혜를 얻는다고 했을 때, 예수의 가르침은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즉 공중의 새가 비유로 사용되는 경우는, 대부분 부지런한 삶, 쉬지 않고 일하는 모습을 상징하는 것이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마 6:26) 하는 식의 가르침은 매우 예외적이기 때문이다. 즉 ‘공중의 새를 보라’에서 ἐμβλέπω는 자연 현상의 의미를 표면적으로 생각하는 수준을 넘어서, 깊은 통찰력을 갖고 이해하라는 요청으로 이해해야 한다.⁷⁾

ἐμβλέπω가 사용된 본문 가운데 사도행전 22:11(바울이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다’)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그 의미를 추정할 수 있다. 즉 바울이 단순히 눈이 먼 것을 넘어서, 더 이상 깊은 관찰과 인식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7) G. Theissen, 『기독교의 탄생: 예수운동에서 종교로』, 박찬웅, 민경식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9), 191-192; *Die Religion der ersten Christen: Eine Theorie des Urchristentums* (Gütersloh: Verlagshaus, 2000). 타이센(G. Theissen)은 이러한 은유를 ‘특수한 삶의 자리’로 해석한다. “새에 대한 전통적인 관찰과 이미지에 따르면, 새들은 부지런하게 둥지를 틀고 새끼를 먹이는 분주한 동물로 여겨진다(4마카 14:15-17). 그러나 이러한 이미지는 모두 무시되고, 근심과 일로부터 해방된 이미지가 부각된다! 여기서 암시된 현실은 실제로 방랑하는 카리스마적 인물들이 앞날을 걱정하지 않고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상황을 암시한다.” 또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뜻을 영혼의 눈으로 ‘자세하게 파악하자’는 『클레멘트1서』도 이러한 의미에서 이 어휘를 사용하고 있다(ἐμβλέψωμεν τοῖς ὄμμασιν τῆς ψυχῆς εἰς τὸ μακρόθυμον αὐτοῦ βούλημα, 『클레멘트1서』 19:3). 이에 관해서는 N. Walter, “ἐμβλέπω”, Horst Balz and Gerhard Schneider, eds., *EDNT*, vol. 1 (Grand Rapids: Eerdmans, 1990), 442를 참조하라.

2.3. ἀναβλέπω에 관한 논의

첫 번째 치유 행위 이후, 특이하게도 예수는 “무엇이 좀 보이느냐?”(εἰ τι βλέπεις; 막 8:23, 『공동개정』)라고 질문을 던진다. 마가의 다른 치유 일화에서는 치유 행위 이후, ‘그에게서 나오라’(1:25), ‘깨끗하게 되어라’(1:41), ‘너의 팔을 뻗으라’(3:5), ‘고침을 받으라’(5:34), ‘일어나라’(5:41), ‘열리라’(7:34) 등과 같이 명령형 문장이 나타나지만, 여기서는 질문 형식의 말씀이 나온다.⁸⁾ 예수가 병자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경우는 이 본문밖에 없다. 즉 이 질문은 맹인이 보게 되었음을 암시하면서도, 동시에 완벽하게 보지는 못한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완전한 맹인의 상태에서 벗어나 무언가를 볼 수는 있지만, 완벽히 보기 위해서는 아직 한 차례의 안수가 필요한 상태를 지시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몰이해, 불완전한 이해, 완전한 이해의 단계를 상징하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24절에는 ‘보다’ 관련 동사 세 개가 연달아 언급된다. “[그가] 쳐다보며 (ἀναβλέπω)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βλέπω)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ὁράω).” 즉 23절에서 예수는 맹인이 완전히 보지 못하던 수준을 넘어서 무언가 ‘볼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음을 예상하며 질문을 던졌고, 24절에서 맹인은 실제로 ‘보는 행위’에 성공했음을 세 개의 동사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다. 그러나 이어지는 25절에서 ‘보다’와 관련된 특별한 동사 두 개가 등장하는 것과 비교하면 그의 시력은 아직 완벽하지 않은 상태임을 알려준다.

앞서 다룬 두 개의 합성동사와 비교하면 ἀναβλέπω는 드물지 않게 사용된다.⁹⁾ 이 동사의 문자 그대로의 의미는 ‘쳐다보다’가 된다. 즉 ‘위를 향하여’에 해당하는 전치사 ἀνά와 ‘보다’가 결합하여 위쪽을 바라보는 것을 의미한다. 오병이어 기적 본문에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교”라는 표현에서 ‘우러러’에 해당하는 어휘가 바로 ἀναβλέπω다(막 6:41; 마 14:19; 눅 9:16). ‘귀 먹고 말 더듬는 자’ 본문에서도 이 어휘는 “우러러 (보다)”로 번역되었다(“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막 7:34). 또한 삭개오 본문에서 예수가 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쳐다보았다’는 표현에서도 이 단어가 사용된다(눅 19:5).¹⁰⁾

8) R. H. Stein, *Mark*, BECNT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8), 388-389 참조.

9) 신약성서에서 ἀναβλέπω는 25번 사용된다(마태복음 3번, 마가복음 6번, 누가복음 7번, 요한복음 4번, 사도행전 5번).

10) 다른 한편, 이 단어는 ‘위쪽을 쳐다보다’의 의미가 아니라 일반적인 목적의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가령 예수가 예루살렘에서 부자들의 헌금을 주시하는 장면에서 이 단어가 사용된다(눅 21:1, 한편, 막 12:41 병행구에서는 θεωρέω가 사용된다).

반면 ἀναβλέπω는 ‘시력을 회복하다’의 의미로, 즉 보지 못하던 맹인이 눈을 떠 보게 된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도 많다.¹¹⁾ 이 경우에는 전치사 ἀνά가 ‘다시’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해석된다. 신약성서에서 맹인과 관련되어 ἀναβλέπω 동사가 사용될 때에는 예외 없이 ‘시력을 회복하다’를 뜻한다. 물론 선천적인 맹인이 눈을 뜨는 경우에도 이 어휘가 쓰이지만(요 9:1, 11, 15, 18), 대체로는 과거에 시력을 잃었던 사람이 다시 보게 되는 것을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마 11:5 = 눅 7:22; 마 20:34; 막 10:51, 52¹²⁾; 눅 18:41, 42, 43). 벧새다 맹인이 선천적 맹인이었는지 아닌지에 관해서는 알 수가 없지만, 맹인과 관련된 본문에서 ἀναβλέπω가 항상 시력을 회복하다의 의미로 사용되는 점을 기준으로 보면 마가복음 8:24는 ‘쳐다보다’가 아니라 ‘눈을 뜨다, 시력을 회복하다’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으로 여겨진다.

맹인이 1단계 치유를 통해서 희미하게 보게 되었기 때문에 시력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도 있다. 가령 아야요(K. G. Ayayo)에 따르면, 1단계 치유는 주술적 방식에 해당하는데, 이는 예수가 병 고침을 의뢰한 자들의 수준에 맞추어 행한 것이며, 그러한 방법으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반면 안수만으로 치유를 하는 예수만의 독특한 방식을 통해서 치유에 성공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추정한다.¹³⁾ 그러나 예수의 치유 행위에 실패가 있었다고 보는 것에는 무리가 따른다. 또한 1단계 치유에서도 안수가 동반되었기 때문에 예수가 1단계 치유에서 일부러 실패를 보여주었다는 해석도 유지되기 어렵다. 오히려 두 번에 걸친 각각의 치유 행위는 모두 의미가 있는 것이며, ‘보는 것 또는 아는 것’에는 불완전한 단계와 완전한 단계가 있음을 하나의 장면을 통해서

11) 『클레멘트2서』는 육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본문에서, 영적인 차원에서 눈을 뜨는 것을 설명할 때 ἀναβλέπω를 사용한다. “너희는 알지라. 만일 너희가 이 육신 안에 있지 않았더라면 너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겠으며, 어떻게 눈을 뜰 수 있었겠느냐?”(사역; γινώτε· ἐν τίνι ἐσώθητε, ἐν τίνι ἀνεβλέψατε, εἰ μὴ ἐν τῇ σαρκὶ ταύτῃ ὄντες; 『클레멘트2서』 9:2). 또한 『클레멘트2서』 1:6도 참조하라. 따라서 ἀναβλέπω는 초기 기독교문헌에서 승화된 추상적 의미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12) 막 10:46-52의 맹인 바디매오 단락을 편집하면서, 마태와 누가는 모두 ‘디매오의 아들(바디매오)’이라는 신상에 관련된 정보를 생략하는데, 특히 마태는 맹인을 두 사람으로 변경하며(마 20:29-34) 누가는 비교적 마가의 본문에 더 충실한 것으로 보인다(눅 18:35-43). 이에 관해서는 F. Bovon, *Das Evangelium nach Lukas*, EKK III/3 (Zürich: Benziger;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2001), 251-264를 참조하라.

13) K. G. Ayayo, “Magical Expectations and the Two-Stage Healing of Mark 8”, *BBR* 24 (2014), 390. 이와 비슷한 입장으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벧새다 맹인 단락이 생략된 이유를 단 번에 치유되지 않은 특이한 일화였기 때문이라는 다음과 같은 연구도 있다. J. M. Ross, “Another Look at Mark 8:26”, *NT* 29 (1987), 97; B. Glenn and J. T. Noble, “Perception and Prosopagnosia in Mark 8.22-26”, *JSNT* 37 (2014), 71-85, 특히 72.

명시적으로 보여주려는 데 본래적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사도행전의 다메섹 소명 장면에서 바울은 일시적으로 눈으로 볼 수 없는 상태가 된다. 이 장면에서 바울이 다시 보게 되었음을 표현할 때 ἀναβλέπω가 사용된다(행 9:12, 17, 18). 그런데 동일한 장면을 보도하는 사도행전 22:13에 대한 한글 번역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 이 구절에서 ἀναβλέπω가 두 번 사용되는데, 『개역개정』은 다음과 같이 번역한다.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ἀνάβλεψον) 하거늘 [내가, 즉 바울이] 즉시 그를[아나니아를] 쳐다보았다 노라(ἀνέβλεψα).” 여기서 같은 동사를 ‘다시 보다’와 ‘쳐다보다’로 각각 번역하고 있다. 반면 『표준』과 『공동번역』은 이를 동일하게 ‘맹인이 눈을 뜨다’의 의미로 번역했다. 사실상 한글 『개역개정』 번역과 영어번역인 KJV를 제외한 거의 모든 한글, 영어, 독어 번역은 한 구절 안에 있는 이 두 단어를 똑같은 의미인 ‘시력을 회복하다’로 번역하고 있다. 물론 사도행전 22:13에 대한 『개역개정』 번역에서 바울이 아나니아의 ‘다시 보라’는 선언에 이어 ‘즉시 그를 쳐다보았다’는 표현에는 바울이 ‘다시 보게 되었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현재와 같은 번역은 그리스어 원문의 의미를 오해할 수 있다. ‘즉시 그를 쳐다보았다’로 번역한 의도를 추정하면, 아마도 이 동사가 단순과거(aorist)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회적 행위에 해당하는 ‘쳐다보다’로 번역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신약성서에서 ἀναβλέπω의 과거형은 항상 단순과거로 표현된다. 즉 맹인이 시력을 잠깐 회복했다가 다시 맹인의 상태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정상인의 시력을 갖고 살았음을 의미함에도 불구하고 미완료 시제가 아니라 단순과거 시제가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도행전 22:13 이후 바울은 완전히 시력을 회복한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 구절의 ‘즉시 그를 쳐다보았다’는 번역은 바울이 시력을 회복하게 되어서 그를(아나니아를) 볼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마가복음 8:24의 ἀναβλέπω를 ‘쳐다보다’로 번역하게 된 또 다른 이유는, 귀먹고 말더듬는 사람을 치유한 본문(막 7:31-37)과 벳새다 맹인 본문이 밀접한 것으로 여겨져 왔기 때문이다. 예수는 “하늘을 우리러 탄식하시며 … 에바다”라고 말씀하여 병자를 낫게 한다(막 7:34). 여기서의 위를 향하여 바라보는 동작을 ‘우리러’(ἀναβλέψας)로 번역했는데, 벳새다 맹인 본문에서도 똑같은 표현(ἀναβλέψας)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맹인의 동작 또한 ‘쳐다보다’(막 8:24)로 번역한 경향이 있다. 그러나 유사한 형태의 두 단락(막 7:31-37과 막 8:22-26)에서 동일한 표현(단순과거분사)이 각각 사용되었다고 해서, 그것

을 동일하게 번역한 것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번역은 두 개의 단락을 한 쌍의 밀접한 전승으로 보려는 단순한 관점에서 야기된 오류라고 볼 수 있다.¹⁴⁾ 단순하게 보더라도, 마가복음 7:34의 ἀναβλέπω의 단순과거분사의 주어는 예수고, 마가복음 8:24의 분사의 주어는 맹인이므로 이를 동일하게 번역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¹⁵⁾ 그러므로 ἀναβλέπω(막 8:24)에 관한 번역은, ‘그가 다시 보게 된 후, 또는 시력을 회복한 후(단순과거분사) 말했다’가 적절할 것으로 여겨진다. 뮐러(P.-G. Müller)도 ‘시력을 회복하다’라는 번역을 지지하는데, 왜냐하면 이 단어가 “종말론적-메시아적 구원의 시대가 다가오는 것에 대한 표징”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¹⁶⁾ 이러한 설명은 본문의 상징적 차원을 고려한 것이라고 평가될 수 있지만, 마가의 독특한 신학을 묻지 않고 포괄적이고 일반화된 신학적 설명에 불과하다는 한계가 있다. 즉 이 단어를 통해서 마가 기자가 의도했던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추정해야 할 것이다.

3. 메시아 비밀 주제와 관련된 논의

예수는 그를 집으로 보내면서 마을로는 들어가지 말 것을 명령한다(μὴ εἰς τὴν κώμην εἰσεέλθῃς, 막 8:26). 애매하게 들리는 이 말씀에 관해서, 가롤로프(J. Roloff)는 이 명령이 특이하다는 것 자체가 역사적인 사실임을 알려준다고 주장하면서, 실제로 그 마을이 예수의 가르침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러한 명령을 내린 것이라고 추정한다.¹⁷⁾ 이러한 추정은 Q자료에 나타난 예수의 저주 대상에 고라신과 함께 벧새다가 포함되어 있음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지만(마 11:20; 눅 10:13), 벧새다 마을(또는 도시)이¹⁸⁾ 실제로 예수

14) 이에 관해서는 J. Gnllka, *Das Evangelium nach Markus (Mk 1-8,26)*, 3. Aufl., EKK II/1 (Zürich: Benziger Verlag, 1989), 312를 참조하라.

15) R. T. France, *The Gospel of Mark: A Commentary on the Greek Text*, New International Greek Testament Commentary (Grand Rapids: Eerdmans, 2002), 325 또한 이러한 번역을 지지한다. R. A. Guelich, 『마가복음 상, 1-8:26』, 김철 역, WBC 34A (서울: 솔로몬, 2001), 680 참조; *Mark 1-8:26*, WBC 34A (Dallas: Word Books, 1989).

16) P.-G. Müller, “ἀναβλέπω”, Horst Balz and Gerhard Schneider, eds., *EDNT*, vol. 1 (Grand Rapids: Eerdmans, 1990), 76.

17) J. Roloff, *Das Kerygma und der irdische Jesus: Historische Motive in den Jesus-Erzählungen der Evangelien* (Göttingen: Vandenhoeck und Ruprecht, 1973), 128-129.

18) 이 본문이 아닌 다른 곳에서는 벧새다가 도시(πόλις)로 불린다(마 11:20-21[고을]; 눅 9:10[고을]; 요 1:44[동네]). 요세푸스, 『유대고대사』 18:28에 따르면 분봉왕 빌립이 벧새다를 도시로 인정하고 ‘율리아스’로 이름을 변경했다. 그러나 고고학적 조사 결과에 따르면, 벧새다에서는 도시라고 할 만한 구조물뿐 아니라 이곳에서 발행된 동전도 전혀 없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의 ‘도시’라고 보기 어렵고, 다만 도시로서의 최소한의 요건을 갖춘 형태였으므로 ‘마

를 대적했을 것인가와 같은 역사성 관련 물음보다는, 맹인을 마을로부터 구별하려는 예수의 의지를 묘사한 마가의 의도를 살펴보는 것이 더 중요할 것이다.

한편 건드리(R. H. Gundry)의 해석은 특이하다.¹⁹⁾ 그는 집으로 돌아가되 마을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명령의 배후에는, 마을 안에서 구걸하던 행위를 더 이상 하지 말라는 예수의 지시가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구걸로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던 맹인은, 완치가 된 이후에는 더 이상 구걸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며, 따라서 마을에서 그의 구걸하는 모습을 보이지 말라는 것은 대중 앞에서 그가 예수를 통해 완치되었음을 공개하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식으로 해석한다면, 본문의 금지 명령은 비밀 주제를 암시하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예수의 치유 기적을 공개적으로 증언하라는 지시로 풀이된다.²⁰⁾ 그러나 맹인의 개인적 정황에만 집중한 이러한 해석은 과도한 상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공개적 입증을 의도한 것이라면, 왜 ‘알리라’, ‘전하라’, ‘보이라’ 등의 표현으로 마무리 되지 않았는지를 설명하기 어렵다. 오히려 이 금지 명령은 비밀 주제와 관련된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보통의 치유 기적 본문이라면 ‘집으로 가라’는 명령에 이어서, 병에서 나온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라는 등의 지시가 추가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다. 그러나 이 본문에는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 했던 말씀과 같이 집으로 가서 가족에게 알리라는 명령은 나타나지 않는다(막 5:19). 그닐카(J. Gnllka)는 이를 마가의 ‘메시아 비밀 주제’에서 해석할 것을 제안한다.²¹⁾ 그의 해석에 따르면, 맹인이 구원 받는 소식이 그의 집 내부에 제한되고, 마을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는 묘사는, 메시아 비밀 주제에 잘 부합한다는 것이다.²²⁾ 에벨링(H. J. Ebeling) 또한 이를 메시아 비밀 주제의 연장선상에서 해석한다. 그에 따르면, 메시아 비밀과 관련하여, 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소문이 확산되었다는 식의 묘사가 본문에 나타나지 않음은 마가의 의도적 편집이라는 것이다. 그는 그 이유가 이어서 곧바로 나오는 베드로의 메시

을’로 표기한 것을 오류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U. Leibner, *Settlement and History in Hellenistic, Roman, and Byzantine Galilee: An Archaeological Survey of the Eastern Galilee*, Texts and Studies in Ancient Judaism 127 (Tübingen: Mohr Siebeck, 2009), 223, n. 91; G. Theissen, *Urchristliche Wundergeschichten: Ein Beitrag zur formgeschichtliche Erforschung der synoptischen Evangelien*, StNT 8 (Gütersloh: Gütersloher Verlagshaus, 1974), 131을 참조하라.

19) R. H. Gundry, *Mark*, 419-420.

20) R. T. France, *The Gospel of Mark*, 325, n. 36 참조.

21) J. Gnllka, *Das Evangelium nach Markus*, 313.

22) *Ibid.*, 314.

아 고백의 중요성이 약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한다.²³⁾ 즉 마가 기자는 베드로의 고백 이전까지는 메시아의 정체가 드러나는 것과 관련된 그 어떤 묘사도 절제하려고 했으며,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메시아 비밀이 비로소 드러나게 하려는 의도였다는 것이다.

메시아 비밀 주제로 해석한 그닐카는 마가복음의 비밀 모티프를 오직 ‘메시아의 정체’로 수렴시키는 전통적인 브레데의 명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브레데의 ‘메시아 비밀’은²⁴⁾ 마가 신학을 해석하는 하나의 이론일 뿐이다. 메시아의 정체에 관한 비밀만이 마가복음의 유일한 주제는 아니다. 마가복음에는 그것을 포함한 다양한 비밀 주제들이 나타나고 있다.²⁵⁾ 예수의 마을 진입 금지 명령을 자신의 정체를 숨기려는 것으로 보기에 무리가 따른다. 마가복음 8:26의 금지 명령을 비밀 주제로 해석하려 한다면, 비밀의 대상은 예수의 정체가 아니라 오히려 맹인의 정체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맹인을 마가공동체를 상징하는 인물로 볼 수 있다면, 이 구절을 마가공동체 스스로의 비밀을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또는 마을로 상징되는 기존 사회로부터 소외된 마가공동체의 현실을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정당화하려는 의도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벧새다 맹인 단락 직후의 베드로의 메시아 고백을 돋보이게 하려고 맹인의 역할을 축소시켰다는 에벨링의 주장에도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 마가의 베드로의 메시아 고백(또는 진술, 막 8:29) 단락은 마태의 편집(마 16:16-19)보다 앞선다. 마태의 본문을 기준으로 마가의 베드로의 고백을 긍정적인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마가의 신학을 곡해할 수 있다. 마가에 따르면, 베드로의 고백 직후 예수는 제자들을 꾸짖으면서(ἐπιτιμήσεν αὐτοῖς, 막 8:30)²⁶⁾ 발설 금지 명령을 내린다. 즉 마가에서 베드로의 고백은 (수난의 인자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영광의 메시아만을 기대하는) 제자들의 부족한 인식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며, 따라서 긍정적 발언으로 이해될 수 없다. 즉 세 차례에 걸친 수난 예고 단락은 모두 제자들의 몰이해와 엉뚱한 행동을 집

23) H. J. Ebeling, *Das Messiasgeheimnis und die Botschaft des Marcus-Evangelisten*, BZNW 19 (Berlin: Alfred Töpelmann, 1939), 140-142.

24) W. Wrede, *Das Messiasgeheimnis in den Evangelien: Zugleich ein Beitrag zum Verständnis des Markusevangeliums* (Göttingen: Vandenhoeck, 1901).

25) G. Theissen, 『복음서의 교회정치학: 복음서에 대한 사회-수사학적 접근』, 류호성, 김학철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2), 23-66 참조; *Gospel Writing and Church Politics: A Socio-Rhetorical Approach* (Chung Chi College: The Chinese University of Hong Kong, 2001).

26) 『개역개정』은 ‘그들에게’(αὐτοῖς)를 생략한 채 번역했다. 또한 심각한 비난과 꾸짖음을 의미하는 ἐπιτιμάω를 ‘경고하다’로 부드럽게 번역했다. 이러한 점 역시 한글 성경 번역에 있어서 고려가 되어야 한다.

중적으로 묘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²⁷⁾ 그러므로 벧새다 맹인의 일화는, 베드로의 고백(막 8:29)의 의미를 드러내기 위한 사전 작업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맹인이 제자들의 인식 수준을 능가한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제자들은 맹인이 다양한 종류의 ‘보다’ 동사를 통해서 인식력을 갖추게 된 것과는 정반대의 이해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²⁸⁾는 본문에는 다양한 이문이 존재한다. 프란스(R. T. France)는 26절의 이문이 다양하게 존재한다는 사실은, 마가의 다른 치유 기적 본문들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구절을 비밀 엄수 명령으로 이해해온 경향이 강하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주장한다.²⁹⁾ 또한 로스(J. M. Ross)는 마가복음 8:26하의 다양한 이문을 8개의 종류로 검토하며 원문 추정 의 몇 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나서, 원문에 가장 가까운 독법을 “μηδενὶ εἴπῃς εἰς τὴν κώμην”으로, 즉 “마을 안에서 누구에게도 이것을 말하지 말라”는 내용으로 추정한다.³⁰⁾ 그런데 로스의 추정은 예수가 베드로에게 발설을 금지한 명령과 유사하게 ‘누구에게도’를 엄두에 두어 ‘메시아 비밀’의 주제에 부합하게 재구성한 느낌이 든다(μηδενὶ λέγωσιν περὶ αὐτοῦ, 막 8:30). 오히려 마을로 들어가지 말라는 말씀은 직접 인용으로, 그를 집으로 보낸 것은 마가 기자의 서술로 구별되어 있는 점을 보면, ‘집’과 ‘마을’을 구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의도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따라서 네스틀레-알란트 28판이 채택하고 있는 현재의 독법이 더 적절해 보인다.

본문은 맹인의 집이 마을 밖에 있었는지의 여부를 알려주지 않는다. 오히려 집으로는 가되 마을 안으로는 들어가지 말라는 명령은 그 맹인의 집과 마을을 대조하려는 마가의 의도를 보여준다.³¹⁾ 집은 공개의 장소를, 마을은 비공개(비밀)의 장소를 의미하며, 이로써 맹인은 공개와 비공개 사이를 명확히 구별해야 하는 사람으로 그려진다고 볼 수 있다. 눈을 뜨게 된 맹인과는 대조적으로, 본문 직전 단락에서 제자들은 불완전한 믿음을 가진 자들로 묘사된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οὐ βλέπετε)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οὐκ ἀκούετε)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οὐ μνημονεύετε)”(막 8:18). 즉 예수는 제자들을 눈이 멀고 귀 먹은 자들이며 또한 기억하지도 못

27) 마가복음의 제자들의 몰이해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서중석, 『마가복음』, 연세신학백주년 기념 성경주석 36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3), 198-202를 보라.

28) 이를 지지하는 사본은 κ , B, syr.다(μηδὲ εἰς τὴν κώμην εἰσέλθῃς). 가령 ‘마을에서 아무에게도 그것을 말하지 말라’(it^h), ‘마을로 들어가지 말고 아무에게도 그것을 말하지 말라’(A, C, K, 33, 700) 등의 이문이 있다.

29) R. T. France, *The Gospel of Mark*, 325.

30) J. M. Ross, “Another Look at Mark 8:26”, 97-99.

31) J. Gnllka, *Das Evangelium nach Markus*, 314 참조.

하는 불완전한 자들이라고 평가하는 데 반해, 맹인에게는 완전한 시력을 갖추게 해준 것으로 대조된다.

본 연구는 마가 기자가 벧새다 맹인을 중요한 신앙의 모델로 설정한다고 추정한다. 그는 아무 것도 볼 수 없는 완전한 몰이해의 상태에서 예수를 만났다. 그것도 자발적으로 예수에게 온 것이 아니라 이끌려 왔으며, 1차 치유를 통해서는 희미한 수준으로만 이해할 수 있게 되었지만, 2차 치유를 통해서 완전한 이해의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 이를 통해서 그는 완전한 몰이해에서 완전한 이해로 발전한 참다운 추종자의 모델로 제시된다고 볼 수 있다. 마가복음의 흐름상 예수와 더불어 활동하는 주역은 이름이 알려진 열두 제자지만, 사실상 그들을 능가하는 모델은 이 맹인처럼 이름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마가 기자는 제시했다고 가정할 수 있다.

4. 마가복음 8:25의 의미에 관한 추가적 논의

여기서는 25절(“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분석을 시도하려고 한다. 우선 ἐμβλέπω가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ἐνέβλεπον). 연속적인 세 개의 합성동사 가운데 이 단어는 단순과거 시제인 다른 동사와는 달리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다. 미완료 시제가 지속적인 동작을 지시한다는 점을 볼 때, 마가 기자는 이 맹인이 일시적으로 ἐμβλέπω의 경험을 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확실한 인식’의 경지를 유지한 특별한 인물로 묘사한다고 볼 수 있다.

‘보다’ 동사와 관련한 시제의 용례를 보면, 우선 ἀναβλέπω는 신약성서에서 모두 단순과거로 언급되며, 미완료 시제로 나타난 경우는 없다.³²⁾ διαβλέπω 역시 전부 단순과거 시제로 나타난다.³³⁾ ἐμβλέπω도 대부분 단순과거지만 단 두 군데, 즉 마가복음 8:25와 사도행전 22:11에서 미완료 시제가 사용된다.³⁴⁾ 이와 같이 ‘보다’ 관련 동사가 사용될 경우, 미완료 시제로 언급되는 일은 드물다.³⁵⁾ 마가복음 8:25에서 단순과거로 되어 있는 다른 동사들과 달리 ἐμβλέπω만 미완료로 언급한 이유는, 맹인이 그 순간만 밝히 본 것

32) 막 6:41; 7:34; 8:24; 10:51, 52; 16:4; 마 11:5; 14:19; 20:34; 눅 7:22; 9:16; 18:41, 42, 43; 19:5; 21:1; 요 9:11, 15, 18; 행 9:12, 17, 18; 22:13.

33) 막 8:25; 마 7:5; 눅 6:42.

34)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οὐκ ἐνέβλεπον, 행 22:11).

35) βλέπω의 경우, 미완료시제는 두 군데에서 나타난다(요 13:2; 행 9:8). ὁράω의 경우는 전무하며, θεωρέω의 경우에는 다섯 번 미완료시제로 언급된다(막 3:11; 12:41; 15:47; 눅 10:18; 요 6:2).

이 아니라, 그가 통찰력을 지닌 인물의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가령 프랑스에 따르면, “미완료 시제의 사용은 아마도 새로운 상태의 시작을 시사하는 것이다. 즉 이제부터는 그가 모든 것을 똑똑하게 보게 될 것임을 의미한다.”³⁶⁾

물론 그리스어의 단순과거와 미완료를 구별하여 한글로 번역하기란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벳새다 맹인 단락과 같이 시제 구별이 중요한 본문에서는 특별한 숙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³⁷⁾ 이 단어에 대한 한글 번역은 앞의 두 개의 단순과거 번역과 차이를 두지 않았다. “밝히 보는지라(『개역개정』), 똑똑히 보게 되었다(『표준』, 『공동개정』).” 독어 번역은 조동사 können을 사용하여 단순 과거와 구별한다. 가령 LUT 번역의 경우 “so daß er … sehen konnte”로, EIN 번역도 이와 비슷하게 “konnte … sehen”으로 번역한다. 영어번역 중 일부도 조동사 can을 사용하였다(“he could see”, NRS, NAB, NJB). 따라서 한글 성경도 미완료 시제를 구별하기 위해 “볼 수 있게 되었다”로 번역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ἐμβλέπω의 목적어 ‘모든 것’(ἅπαντα)에 관해서도 주목이 필요하다. 여기서는 번역의 문제를 제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맹인이 특별한 통찰력을 갖게 되었고, 더 나아가 마가복음에서 완벽한 이해력을 지닌 모델로 설정되었음을 강조하려는 것이다. 맹인은 아무 것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출발하여, 제1차 안수(와 침 뱉음)를 통해서 눈을 다시 떴지만(ἀναβλέπω), 완전한 시력을 갖지는 못했다. 제2차 안수를 통해서 그는 꿰뚫어 보게 되었고(διαβλέπω), 최종적으로는 모든 것을 밝히 볼 수 있게 되었다(ἐμβλέπω). 본문의 ‘보다’ 관련 동사들의 목적어가 명시된 세 부분을 보면, 우선 “무엇을(τι) 좀 보느냐”(23절)는 예수의 질문, 둘째, “사람들”(τοὺς ἀνθρώπους)이 희미하게 보인다는 맹인의 답변(24절), 마지막으로 “모든 것”(ἅπαντα)을 밝히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마지막 목적어인 ‘모든 것’은 본문의 흐름상 과장된 느낌을 준다. 왜냐하면 앞서 사람들을 희미하게 보는 상태를 벗어나서 ‘사람들을 똑똑하게 보게 되었다’거나 혹은 ‘정상인의 시력을 갖추게 되었다’는 것과 같은 표현만으로도 맹인이 치유되었음을 보여주기에 충분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굳

36) R. T. France, *The Gospel of Mark*, 325. 반면 J. R. Donahue and D. J. Harrington, *The Gospel of Mark*, SPS 2 (Minnesota: Liturgical Press, 2002), 257은 그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스스로 볼 수 있는 시력을 갖추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축소하여 해석한다.

37) 미완료 과거 시제를 영어 번역에서는 매우 다양하게 할 수 있음을 제시한 다음의 논문을 참조하라. 정창욱, “English Standard Version의 신약 번역에 대한 평가: 미완료 과거와 접속사, 그리고 단어의 번역을 중심으로”, 『성경원문연구』 32 (2013), 185-204.

이 ‘모든 것’이라는 목적어를 사용한 데에는 마가 기자의 의도가 깔려있을 것이라고 본다.

‘모든 것’을 가리키는 ἅπαντα는 ἅπας의 중성복수 4격이다. 이 단어는 주로 ‘전부, 예외 없음’ 등의 양적인 의미를 지시하는 것으로 사용된다.³⁸⁾ 그런데 ‘모든 것을 보다’의 형태로 구성된 문장은 신약성서에서 특이한 예다. ‘모든 것’(만물)이라는 목적어와 ‘알다 또는 보다’라는 동사가 결합된 예 또한 드물게 나타난다. ‘만물 내지는 모든 것’은 주로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관련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유일신 신앙의 관점에서는, 모든 것을 볼 수 있거나 알 수 있음에 해당하는 주어는 오직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것이 상식일 것이다. 가령 바울에 따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ἀπεκάλυψεν) 성령은 모든 것(πάντα)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고전 2:10). 또한 요한 기자에 따르면,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γινώσκει πάντα) 때문이라”(요일 3:20). 물론 여기서 인용된 바울과 요한 문서에서는 ἅπαντα가 아니라 πάντα가 사용되었지만, 이러한 해석을 도출하기에는 큰 문제가 없다.

따라서 맹인이 ‘모든 것’을 밝히 볼 수 있게 되었다는 표현은 의미심장하다고 볼 수 있다.³⁹⁾ 즉 그는 마가복음에서 높은 ‘인식’의 경지에 이른 인물로 묘사된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바로 이어 나오는 베드로의 메시아 고백은 이 맹인의 이해력과 비교하면 수준 미달의 것으로 대조된다.

25절의 부사 τηλαυγῶς는 신약성서에서 단 한 번 사용된 단어인데, 『개역개정』은 이를 ‘밝히’로, 『표준』과 『공동개정』은 ‘똑똑히’로 번역한다. 이는 τῆλε와 αὐγῆ가 합성된 부사로 ‘멀리까지 광채가 뻗어나가는 상태’(far-shining, far-beaming, far-seen)를 의미한다. 마가 기자가 이 독특한 부

38) ἅπας가 언급된 대부분의 구절이 그러하다. 다음 구절들을 보라. 마 6:32; 24:39; 28:11; 막 1:27; 11:32; 눅 3:21; 4:6, 40; 5:26; 7:16; 8:37; 9:15; 15:13; 17:27, 29; 19:37, 48; 20:6; 21:4; 23:1; 요 4:25; 행 2:7, 44; 4:31, 32; 5:12, 16; 10:8; 11:10; 16:3, 28, 33; 25:24; 27:33; 갈 3:28; 엡 6:13; 살후 2:12; 딤펢전 1:16; 약 3:2. 이 가운데 유일하게 요 4:25는 인식론적 차원의 ‘모든 것’을 가리킨다고 보인다(“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시리이다”).

39) ἐμβλέπω의 목적어는 대부분 3격 또는 εἰς + 4격으로 온다. 그러므로 벧새다 맹인 단락에서 목적어가 4격으로 오는 것은 특이한 경우에 해당된다. 본문 이외에 4격이 목적어로 나타나는 유일한 예는 사 5:12(칠십인역)다. “그들이 …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οὐκ ἐμβλέπουσιν)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또한 B. Glennly and J. T. Noble, “Perception and Prosopagnosia”, 77은, 이 동사의 목적어가 대부분 인물, 집단임을 지적하면서(요 1:36; 막 10:21), 벧새다 맹인이 뚜렷이 보게 된 대상은 사람들의 얼굴들만이 아니며 그들에 대한 깊이 있는 생각이 가능해진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이 동사의 목적어가 주로 사람인 것은 맞지만, ‘모든 것’은 중성복수 4격이므로 매우 포괄적인 범주를 가리키는 것이 맹인이 목격한 사람들로 국한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사를 언급한 것은, 앞서 분석한 ἐμβλέπω의 미완료 시제, ἅπαντα의 의미 등과 함께, 치유된 맹인의 높은 인식 수준을 강조하려는 의도를 드러낸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25절의 ἀποκαθιστάνω의 번역에 관해서도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문에서는 단순과거 능동태가 사용되는데(ἀπεκατέστη), 『개역개정』은 이를 ‘났다’로, 『표준』은 ‘시력을 회복하다’로, 『공동개정』은 ‘완전히 성하게 되다’로 번역한다. 기존의 번역은 맹인이 시력을 회복한 것으로 번역하든지, 혹은 시력을 포함한 그의 전체적인 상태(가령 건강상태)가 회복된 것으로 번역하든지의 두 종류로 나뉜다. 영어와 독어 번역도 두 종류의 번역이 엇갈리고 있다. 신약성서에서 이 단어가 신체의 회복을 가리키는 것으로 사용된 예는 단 한 번인데, 즉 안식일에 고침을 받은 병자의 ‘손이 회복’된 일화다(막 3:5; 마 12:13; 눅 6:10). 그런데 이 때에는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가 사용된다(ἀπεκατεστάθη). 이 단어의 나머지 용례는 종말론적 회복을 가리킨다는 점에서 의미심장하다. 변화산상에서 예수는 ‘엘리아가 모든 일을 회복할 것’(ἀποκαθιστάνει, 현재 능동태)이라고 말한다(막 9:12; 마 17:11).⁴⁰⁾ 또한 사도행전에 따르면, 부활한 예수에게 제자들이 던진 첫 질문은 ‘이스라엘의 회복’(ἀποκαθιστάνεις)에 관한 것으로 이 역시 현재 능동태로 언급된다. 이와 같이 ἀποκαθιστάνω는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으로서의 종말론적 완성을 가리키는 중요한 개념으로 사용된다.⁴¹⁾ 즉 이 단어가 벧새다 맹인 본문에서 능동태로 사용된다는 점과 함께 종말론적, 궁극적 회복을 지시하는 개념으로 드물지 않게 사용된다는 점은, 마가 기자가 이 인물에 대한 묘사를 중요하게 처리했음을 말해준다. 그러므로 ‘시력 회복’으로 번역할 경우에는 완전한 이해력을 갖추어 ‘모든 것을 깨닫는 수준이 됨’의 의미를 염두에 두는 것이 필요하며, ‘온전해지다’의 의미를 선호할 경우 그의 정체성이 완전한 수준으로 거듭난 것으로 번역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여겨진다.

글레니(B. Glenny)와 노블(J. T. Noble)의 논문은 흥미로운 견해를 제시한다. 이들은 1단계 치유는 감각적 회복(optical sight)을, 2단계 치유는 이해력의 회복(cognitive perception)을 의미한다고 해석한다.⁴²⁾ 이들은 현대 철학적 심리학의 관점에서 두 번의 치유 행위를 설명함으로써 ‘보기는 하지만

40) 마 17:11에서는 미래 능동태(ἀποκαταστήσει)로 되어 있고, 누가의 병행본문에서는 이 부분이 생략되어 있다(눅 9:28-36).

41) 히 13:19에는 ‘다시 돌아가도록’(ἀποκατασταθῶ)의 의미로 단순과거 수동태 가정법으로 되어 있다.

42) B. Glenny and J. T. Noble, “Perception and Prosopagnosia”, 71-85, 특히 72.

이해하지 못함’이라는 1단계 치유 직후의 상황을 설명할 수 있다고 하면서, 첫째 안수는 단순히 시각적 기능을 복구했고, 둘째 안수가 형상에 대한 통합적 인지능력(cognitive synthesis of form)을 갖추게 했다고 해석한다. 그들에 따르면, 마가 기자는 시력과 이해력 사이의 생리학적 차이를 고려했고, 무언가를 단순히 보는 것과, 그것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종합하는 능력은 또 다른 것임을 설명하면서, 1단계 치유 이후 맹인은 시각적 능력은 회복되었지만, 마치 안면인식장애(prosopagnosia)와 같은 상태였다고 추정한다. 즉 그들은 2단계에 걸친 치유는 의학적으로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설명한다. 맹인이 최종적으로 ‘통합적 인지능력’을 지니게 되었다는 이러한 설명은, 맹인이 완전한 상태로 회복되었음을 잘 보여주는 시도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지만, 본문을 병리적 설명 방식으로 축소시킨다는 점에서 본문 배후의 다양한 정황에 대한 논의를 제한할 수 있다. 즉 벧새다 맹인은 단순히 ‘완치된’ 인물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매우 중요한 모델로 제시되고 있음이 강조되어야 한다.

5. 마가공동체의 상징적 인물인 익명의 맹인

잘 알려진 대로, 열두 제자는 마가복음의 물이해 주제의 주인공이다. 제자들은 공생애 처음부터 스승을 따라다니며 많은 기적과 가르침 장면을 목격했지만 예수의 진정한 정체를 잘 이해하지 못하며, 끊임없이 실패하는 모델로 등장한다.⁴³⁾ 물론 부활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를 만나게 될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 나오지만, 실제로 이들의 재회 장면은 마가복음에 나타나지 않는다.⁴⁴⁾ 따라서 제자들은 마가복음 내에서는 긍정적 이미지를 만회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마가복음에서 긍정적인 등장인물은 없는 것인가? 마가의 예수는 외부인들에게 박해를 당하고, 내부인인 제자들에게도 배신을 당한, 철저히 외로운 공생애를 보낸 것으로 보아야 하는가? 마가의 다양한 비밀 모티프에 비추어 볼 때, 마가공동체는 비밀스러운 삶의 정황 속에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마가공동체는 복음서를 통해서 비밀공동

43) 제자들의 둔함과 물이해를 명시하는 마가 본문은 너무도 많다. 막 4:10, 13, 40; 6:37, 52; 7:18; 8:4, 14-21; 8:22-10:52(세 번의 수난예고 단락); 11:1-16:8(수난이야기 전체를 통해서).

44) 가령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막 14:28), “너희가 거기서 [부활한 예수를] 뵈오리라”(막 16:7)는 말씀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마가복음의 중요 사본들에 따르면, 마가복음은 막 16:8의 여인들에 관한 장면에서 종결되며 제자들이 예수를 만나는 장면은 제시되지 않는다.

체에 어울릴 법한 익명의 긍정적 모델들을 제시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아마도 벧새다 맹인은 마가공동체를 위한 실제적인 모델 가운데 하나로 제시되었을 것이다.

벧새다 맹인 단락 직전 단락(막 8:14-21)에서 예수는 제자들을 향하여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가르친다. 여기서 제자들의 무지가 노골적으로 지적됨으로써 제자들의 몰이해 주제는 최고조에 달한다. ‘바리새인들과 헤롯’은 이미 마가복음 3장에서 언급된 적이 있다.⁴⁵⁾ 마가복음 2:1-3:6은 공생애 초기부터 갈등이 증가하는 것을 보여주는 단락에 해당한다. 즉 이 단락의 구성은, 외부인들이 예수를 마음속으로 비난하는 것에서 시작하여(막 2:6이하.), 공개적으로(노골적으로) 살해 모의를 시작하는 것으로 끝을 맺음으로써(막 3:6), 갈등이 증폭함을 보여준다. 마가복음 8:14-21에서 예수가 ‘바리새인들과 헤롯’을 언급한 것은 이러한 맥락과 관련된다. 이 단락 역시 수난 예고 장면으로 넘어가는 중요한 장면의 결론부에 해당된다. 앞서 마가복음 3:6에서는 ‘외부인’을 대표하는 바리새인들과 헤롯당이 예수를 죽이려는 모의를 했지만, 여기서도 예수 자신이 이들을 경계하라는 가르침을 ‘내부인’인 제자들에게 전한다. 그런데 동시에 예수는 이 대목에서 제자들을 비판한다. 예수는 마가복음 8:17, 18, 21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제자들의 몰이해를 강조함으로써, 제자들의 이해 수준이 형편 없는 것임을 드러낸다. 벧새다 맹인 단락 직후에 나오는 제1차 수난예고 장면에서도(그리고 제2, 제3차 수난 예고 단락에서도) 제자들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는다.

그런데 열두 제자에 대한 묘사가 일부 긍정적이라는 해석도 제시되곤 한다. 가령 1단계 치유 이후 흐릿하게 보게 된 것은(막 8:24), 사람들이 예수를 세례 요한, 엘리야, 예언자로 이해하는 수준(막 8:28)과 일치하며, 2단계 치유 이후 또렷이 볼 수 있게 된 것은(막 8:25), “주는 그리스도”라는 베드로의 고백(막 8:29)과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맹인이 눈을 뜬 것처럼 베드로도 눈을 뜬 것으로 묘사된다는 것이다.⁴⁶⁾ 또한 굴리히(R. A. Guelich)는 마가복음에서 귀 먹고 눈 먼 자의 전형은 서기관, 바리새인, 헤롯 등의 외부인이며, 제자들은 내부인에 해당됨을 강조한다. 제자들은 예수의 소명을 받고 그 사역에 동참하는 내부인이며, 다만 무언가 결핍되어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그는 마가복음의 독자들은 스스로를 제자들과 동일시하면서,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경고를 자신들을 향한 경고로 받

45)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막 3:6).

46) R. H. Lightfoot, *History and Interpretation in the Gospels* (New York; London: Harper, 1935), 90-91 참조.

아들였고, 또한 온전한 시력이 회복된 맹인처럼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지녔을 것이라고 해석한다.⁴⁷⁾ 이러한 견해는 예수에 의해 온전한 이해력을 갖추게 된 것으로 묘사된 맹인과, 예수와 격한 대립을 보인 베드로가 극명하게 대조되고 있음을 간과한 것이다. 적어도 이 대립 구도의 본문 구성에서는 맹인과 베드로(제자들)는 대척점에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⁴⁸⁾

벧새다 맹인은 마가 기자가 중요한 모델로 제시한 인물로 볼 수 있다. 즉 그는 완전한 무지의 상태에서 출발하여, 1차 치유를 통해 불완전한 이해력의 소유자가 되었고, 최종적으로는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된 것으로 묘사된다. 그는 열두 제자의 몰이해와 확실하게 대조되는 인물이다.⁴⁹⁾ 맹인은 본래 예수의 추종자가 아니었지만, 예수의 치유를 통해서 내부인 중에서도 중요한 모델로 제시되는 반면, 역으로 열두 제자는 예수의 소명을 받고 추종한 인물들이었지만, 깨달음에 실패하는 내부인으로 묘사된다. 또한 맹인은 “마을로 들어가지 말라”는 명령을 통해서 외부인과의 뚜렷이 구별되는 인물로 그려진다.

본 연구는 벧새다 맹인 단락을 ‘제자 됨’의 주제에 포함시킴으로써 마가 공동체 구성원들의 삶의 정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며, 기독교론, 또는 메시아 비밀 주제를 중심으로 해석하는 기존의 입장과는 상이한 관점을 취한다. 가령, 스타인(R. H. Stein)은 이 본문이 궁극적으로 기독교론적 의미에 집중한다고 주장한다.⁵⁰⁾ 그는 벧새다 맹인 단락에 기적에 대한 반응 보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증명하는 본문으로 기능한다고 해석한다.⁵¹⁾ 그러나 기적에 대한 반응 보도의 부재(不在)를 기독교론과 관련하여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 오히려 비밀스럽게 진행된 치유이므로 당연히 사람들의 반응이 생략된 것이고, 따라서 이 본문은 맹인의 비밀스러운 정체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아야요 또한 스타인과 비슷한 입장을 취한다. 그는 마가복음 8장의 22-26절은 ‘육적인 맹인’을, 27-33절은 ‘영적인 맹인’을 나란히 다룸으로써 비교의 대상이 된다고 지적하면서 양자의 중심주제는 모두 예수의 메시아로서의 정체에 대한 완전한 이해에 이르는 것을 강조한다고 해석한다.⁵²⁾ 그러

47) R. A. Guelich, 『마가복음 상, 1-8:26』, 681-682.

48) 또한 R. H. Stein, *Mark*, 392를 참조하라.

49) F. J. Moloney, *The Gospel of Mark*, 164도 이와 유사한 의견을 제시한다. “막 8:18에서의 제자들에 대한 예수의 비난이, 벧새다 맹인 이야기의 동기가 된다.”

50) R. H. Stein, *Mark*, 394.

51) *Ibid.*, 참조.

52) K. G. Ayayo, “Magical Expectations and the Two-Stage Healing of Mark 8”, 379-391, 특히 380.

나 벧새다 맹인 단락에서는 직접적으로 기독교론적 지시가 나오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러한 해석은 지나치다고 볼 수 있다.

마가복음은 다양한 비밀 주제를 다루고 있으며, 마가공동체는 자신들의 제자 됨과 정체성 등에 관해서 예민한 관심을 가졌을 것이다. 가령 마가공동체는 완전한 무지의 상태에서 출발한 맹인과 비슷한 처지였을 수 있다. 이 단락에 제자들이 등장하지 않고, 오직 예수와 단 둘이 있는 상황에서 치유가 이루어진다는 묘사는, 마가공동체 구성원들이 유력한 집단의 인정을 받지 못했던 자들일 수 있음을 암시한다. 현실적으로는 소외되고 비밀스러운 상황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지만, 마가공동체는 예수를 통해서 자신들이 완전한 이해의 수준에 도달했다는 높은 자의식을 지녔다고 볼 수 있다. 모든 기적 전승을 기독교론 주제로 해석하려는 태도는 무리한 시도다. 오히려 기적 전승들에는 각각의 다양한 의도가 함축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벧새다 맹인 본문의 중심 주제를 기독교론적인 것으로 파악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완전한 이해에 도달한 추종자상 또는 제자상을 제시하는 동시에 열두 제자와의 뚜렷한 대조를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6. 결론

벧새다 맹인 단락은 마가복음의 구조에서 중요한 장면에 해당하며, 또한 2단계 치유라는 독특한 장면은 중요한 의미를 던져준다. 이 맹인은 완전한 무지의 상태(몰이해)에서 시작하여, 불완전 이해를 거쳐 완전한 이해에 도달한 인물로 묘사된다. 그에 관한 이 단락의 초점은 보편적인 인식론적 차원에서 신앙의 차별적 단계를 보여주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가공동체의 실제적 정황을 암시하는 것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맹인이 제자들과 뚜렷이 비교되는 모델로 설정되어 있다는 점은, 마가공동체가 열두 제자로 상징되는 기존의 유력한 그룹과 경쟁적 상황에 처해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번역의 측면에서는, 마가복음 8:24의 ἀναβλέπω는 ‘눈을 다시 뜨다’로, 마가복음 8:25의 ἐμβλέπω는 ‘밝히 볼 수 있게 되었다’로, ἀποκαθιστάνεις는 ‘온전해지다’로 옮기는 것이 원문의 의미에 더 가깝다고 여겨진다. 이와 함께 ἀναβλέπω가 두 번 사용된 사도행전 22:13의 경우도, ‘눈을 다시 뜨다’ 또는 ‘시력을 회복하다’로 동일하게 번역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주제어>(Keywords)

벧새다 맹인, 마가공동체, 메시아 비밀, 열두 제자, 치유.

the blind man of Bethsaida, Marcan community, the Messianic secret, twelve disciples, healing.

(투고 일자: 2017년 7월 30일, 심사 일자: 2017년 9월 4일, 게재 확정 일자: 2017년 10월 26일)

<참고문헌>(References)

- 서중석, 『마가복음』, 연세신학백주년기념 성경주석 36,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3.
- 정창욱, “English Standard Version의 신약 번역에 대한 평가: 미완료 과거와 접속사, 그리고 단어의 번역을 중심으로”, 『성경원문연구』 32 (2013), 185-204.
- 조태연, “마가복음의 ‘봄’과 관련된 동사들: 새로운 번역을 위한 신학적 관찰과 제안”, 『성경원문연구』 32 (2013), 137-158.
- Guelich, R. A., 『마가복음 상, 1-8:26』, 김철 역, WBC 34A, 서울: 솔로몬, 2001; Mark 1-8:26, WBC 34A, Dallas: Word Books, 1989.
- Theissen, G., 『복음서의 교회정치학: 복음서에 대한 사회-수사학적 접근』, 류호성, 김학철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2; *Gospel Writing and Church Politics: A Socio-Rhetorical Approach*, Chung Chi College: The Chinese University of Hong Kong, 2001.
- Theissen, G., 『기독교의 탄생: 예수운동에서 종교로』, 박찬웅, 민경식 역, 대한기독교서회, 2009; *Die Religion der ersten Christen: Eine Theorie des Urchristentums*, Gütersloh: Verlagshaus, 2000.
- Ayayo, K. G., “Magical Expectations and the Two-Stage Healing of Mark 8”, *BBR* 24 (2014), 379-391.
- Bauer, W. and Aland, K., *Wörterbuch zum Neuen Testament*, 6. Aufl., Berlin; New York: Walter de Gruyter, 1988.
- Böcher, O., “δῖαβλέπω”, Horst Balz and Gerhard Schneider, eds., *EDNT*, vol. 1, Grand Rapids: Eerdmans, 1990, 297.
- Bovon, F., *Das Evangelium nach Lukas*, EKK III/3, Zürich: Benziger;

-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2001.
- Cranfield, C. E. B., *The Gospel according to St. Mark*, Cambridge Greek Testament Commentari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59.
- Donahue, J. R. and Harrington, D. J., *The Gospel of Mark*, SPS 2, Minnesota: Liturgical Press, 2002.
- Ebeling, H. J., *Das Messiasgeheimnis und die Botschaft des Marcus-Evangelisten*, BZNW 19, Berlin: Alfred Töpelmann, 1939.
- France, R. T., *The Gospel of Mark: A Commentary on the Greek Text*, New International Greek Testament Commentary, Grand Rapids: Eerdmans, 2002.
- Glenny, B. and Noble, J. T., "Perception and Prosopagnosia in Mark 8.22-26", *JSNT* 37 (2014), 71-85.
- Gnilka, J., *Das Evangelium nach Markus (Mk 1-8,26)*, 3. Aufl., EKK II/1, Zürich: Benziger Verlag, 1989.
- Gundry, R. H., *Mark: A Commentary on His Apology for the Cross*, Grand Rapids: Eerdmans, 1993.
- Lane, W. L., *The Gospel of Mark*, The New International Commentary on the New Testament, Grand Rapids: Eerdmans, 1974.
- Leibner, U., *Settlement and History in Hellenistic, Roman, and Byzantine Galilee: An Archaeological Survey of the Eastern Galilee*, Texts and Studies in Ancient Judaism 127, Tübingen: Mohr Siebeck, 2009.
- Lightfoot, R. H., *History and Interpretation in the Gospels*, New York; London: Harper, 1935.
- Moloney, F. J., *The Gospel of Mark: A Commentary*, Massachusetts: Hendrickson, 2002.
- Müller, P.-G., "ἀναβλέπω", Horst Balz and Gerhard Schneider, eds., *EDNT*, vol. 1, Grand Rapids: Eerdmans, 1990, 76.
- Roloff, J., *Das Kerygma und der irdische Jesus: Historische Motive in den Jesus-Erzählungen der Evangelien*, Göttingen: Vandenhoeck und Ruprecht, 1973.
- Ross, J. M., "Another Look at Mark 8:26", *NT* 29 (1987), 97-99.
- Stein, R. H., *Mark*, BECNT,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8.
- Theissen, G., *Urchristliche Wundergeschichten: Ein Beitrag zur formgeschichtliche Erforschung der synoptischen Evangelien*, StNT 8, Gütersloh: Gütersloher

Verlagshaus, 1974.

Walter, N., “ἐμβλέπω”, Horst Balz and Gerhard Schneider, eds., *EDNT*, vol. 1, Grand Rapids: Eerdmans, 1990, 442.

Wrede, W., *Das Messiasgeheimnis in den Evangelien: Zugleich ein Beitrag zum Verständnis des Markusevangeliums*, Göttingen: Vandenhoeck, 1901.

<Abstract>

**A Study on Verbs Related to Seeing
in the Paragraph of the Blind Man of Bethsaida (Mark 8:22-26)**

Chan Woong Park
(Mokwo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sider the meaning of the paragraph in Mark 8:22-26. This study covers the following contents. First, in the discussion on seeing-related verbs, we will look at the meaning of three verbs (ἀναβλέπω, διαβλέπω, ἐμβλέπω) in various ways. Second, it deals with the subject of interpreting the text in relation to the Messianic secret theory. Third, we proceed with further discussion on the meaning of verse 25. We analyze here that ἐμβλέπω is used as an imperfect tense: its object is uniquely referred to as *all things* (ἅπαντα), and that the blind man of Bethsaida is made perfect by using a special vocabulary of τηλαυγῶς and ἀποκαθιστάνω. Fourth, the text discusses the relevance of the context of the Marcan community. In other words, through sociological interpretation of the text, it can be assumed that the blind man is set as a symbolic figure of the Marcan community.

This paragraph is an important scene in the structure of Mark's Gospel, and the unique scene of the two-stage healing casts an important meaning. This blind man is described as a person who starts from a state of total ignorance (misunderstanding) and reaches a complete understanding through incomplete understanding. It is not only to distinguish the stages of faith from the universal level, but rather to the actual context of the Marcan community. Since the blind man is set as a model that is clearly comparable to the disciples, this can be seen as suggesting that the Marcan community is in a competitive situation with another existing group, which is supposed to be the twelve disciples. As for the aspect of translation, ἀναβλέπω of Mark 8:24 is to be translated as *re-open the eyes*, ἐμβλέπω of Mark 8:25 as *be able to see clearly*, and ἀποκαθιστάνεις as *become perfect*. In the case of Acts 22:13 where ἀναβλέπω is used twice, it seems appropriate to translate the same as *re-open the eyes* or *restore sight*.